

순천시 '살아나는 경제' 행정력 집중

2022년 업무보고...정원 박람회 개최·30만 정원도시 실행 등

순천시가 올해 시정목표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순천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2년 주요 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유기적 협업과 소통, 연관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장 활력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른 시간에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가동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됐다.

보고회는 1국장 1정책 책임제 10건, 경제 활성화 35건, 박람회 지원 78건, 30만 정원도시 실행 18건, 핵심사업 178건, 시민제감 시책 72건, 한국판 뉴딜 2.0 10건, 신년사 제시 신규 사업 23건 등 총 424건의 사업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30만 정원도시 순천 실행 ▲KTTP 전남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 ▲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및 산업 거점도시 구축 ▲가칭 '순천형 상생금융' 설립 추진 ▲미래형 일자리 창

출 ▲위드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농업소득 직접 지원 ▲발효식품 연관 산업 육성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등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향을 맞췄다.

30만 정원도시 실행을 위해서는 ▲온누리 와이파이 확대 구축 ▲AI 반려로봇 활용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 ▲공립 노인쉼터 건립 ▲디지털 혁신 모범도시 조성 ▲절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천 야간경관 조성 ▲조계산 국립공원 승격 등을 추진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사업은 ▲민관·산학·사회단체 박람회 협력체계 구축 ▲도축장 약취저감시설 지원 ▲다채로운 시가지 경관 연출 ▲브릿지 가든 조성 사업 ▲박람회장 진입도로 구조 개선 사업 ▲호두산 숲속 야영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공 개최를 견인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맹률 제로화 추진 ▲공립 치매어르신 주간 보호센터 운영 ▲우리동

네 어르신 서로 돌봄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확대 ▲2050탄소중립 실행 용역을 통해 미래 비전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국고 발굴 사업은 ▲국립 순천만 디지털 생태원 설립 ▲전남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센터 건립 ▲순천만 갯벌 블루카본 강화 사업 ▲외서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총 100건 203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청사 건립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경전선 전철화사업 도시기간 지중화 등 진행 중인 현안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2년은 시민들의 일상과 체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모멘텀이자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다"며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30만 정원도시 실행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한 층 더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

읍·면별 1개소씩 12곳 선정...주민 밀착형 쉼터 등 조성

보성군이 2022년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숲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역사성을 띠고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읍·면에서 현장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제출하면 군에서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읍·면별 1개소씩 총 12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보성군은 방치된 산림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생활 밀착형 숲 생활권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산림분야

근로자를 투입해 현장 여건에 맞게 숲을 정비한 후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심고 건강 쉼터 및 휴게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은 1000만 그루 도시 숲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곳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산림 복지향상과 더불어 산림 문화 자원의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100년생 살구나무 보성역술 개발, 오봉산 구들장 채취지 및 달구지길 복원, 해평호 수변 대나무숲 길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숲속의 전남만들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

내년 1월 20일까지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 사건의 진상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한 데 이어 담당 팀과 사실조사반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여수시는 또 여순사건 전문가와 조사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사실조사반을 꾸려 피해 사실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는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기념공원 유치와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 유적지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생존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구례군, 24일부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구례군이 전 군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 소지자 등 2만5423명이다. 구례군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

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례군은 지난 14일 군의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광양제철소가 새롭게 개발한 국산화 저취 내화물 'Pos-MHP'가 100% 적용된 1제강공장의 전로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일본 전량 수입 '저취 내화물' 국산화 성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저취 내화물'의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고품질의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로에 담긴 쇳물의 성분을 균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로 상부에서 산소를, 하부에서 아르곤 등의 불활성가스를 불어넣는다.

이때 전로 내부의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화물을 바닥에 축조한다. 이를 저취 내화물이라고 하며, 저취 내화물의 불활성가스를 집어넣는 세관이 막히거나 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쇳물이 균일하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는 저취 내화물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거나

나 침식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소재 국산화가 필요했다.

광양제철소 노제그룹, 제강부, 제강연구그룹, 포스코케미칼은 '저취 내화물'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수입품 대비 침식 정도 및 속도 저감 등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갔다.

광양제철소는 우선 1제강공장을 대상으로 조업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바탕으로 내화물 내 세관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공법을 개발했다.

아울러 기술연구원 제강연구그룹은 저취 내화물의 막힘과 침식을 억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세관 개수와 유량을 고려하여 구조를 새롭게 설계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개발한 저취 내화물 'Pos-MHP'를 1제강공장 전로 한 기에 시범적용을 마치고, 공장 전체로 확대를 완료했다. 이로써 광양제철소 1제강공장은 '국산화 저취 내화물'이 100% 적용된 첫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Pos-MHP는 전량 수입해오던 저취 내화물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과 함께 기존 대비 세관 개수를 차별화하고 원가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저취 내화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 모든 전로에 신규 저취 내화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세열골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구례 만들 것"

박임규 구례경찰서장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감격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제75대 구례경찰서장에 취임한 박임규(59)총경은 "선제적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해 안전한 구례 만들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또 "안으로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경찰



이 되도록 노력하고 경찰관의 기본 자세 확립과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례 광의면 출생인 박 서장은 전남대학교 법과를 나왔으며 1991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감사계장, 민원실장, 서울청 치안지도관, 보성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